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관세 수입 두 배 증가 불구 공공부채 1조 불 돌파
- WSJ: 연준 금리 인하 전망 관련 의견 엇갈렸다....동결 입장도
- Reuters: 뉴욕 연준 총재 "노동 시장 둔화로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지지

[무역 전쟁]

- Reuters: 9월 미 컨테이너 수입 감소...트럼프 관세의 글로벌 교역 여파로
- Reuters: 중국, 희토류 규제 확대...국방 및 반도체 기업 타깃

[미 행정부]

- WSJ: 공화당, 백악관에 공무원 해고 등 강경 입장에 경고
- Bloomberg: 항공 여행 중단...셧다운 협상에 부담 가해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트럼프의 목재 관세,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나

[전기차]

- Bloomberg: 미국, 역대 최고 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추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웬디스, 기업 회생 프로젝트 발표, 브랜드 회복 차원
- Bloomberg: 넷플릭스, K-Pop 열풍 예상했으나 일론 머스크와 관세가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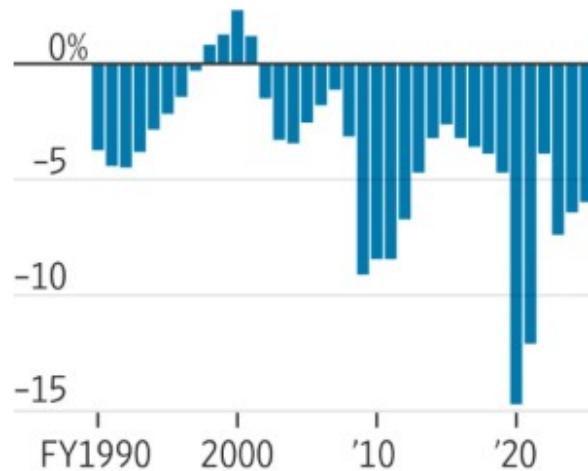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Tariffs Are Way Up. Interest on Debt Tops \$1 Trillion. And DOGE Didn't Do Much.

미 관세 수입 두배 증가 불구 공공부채 1조불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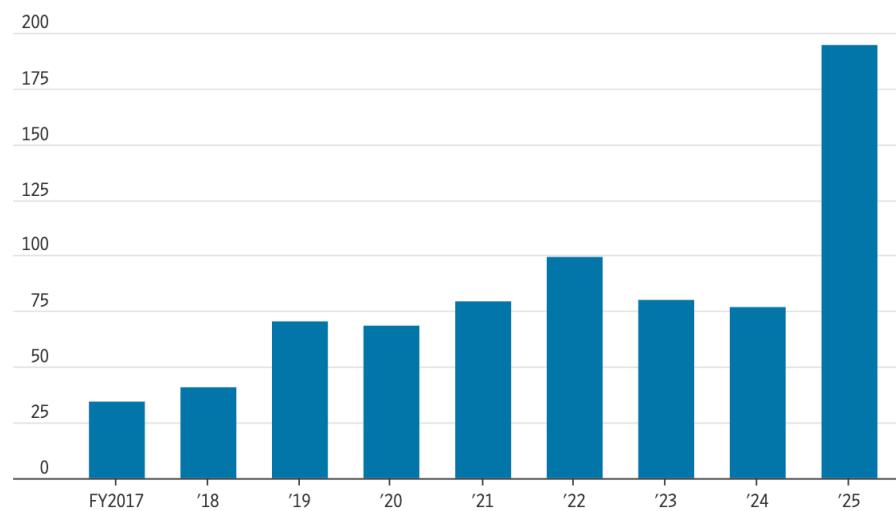
- 2025년 연방 회계 연도가 9월말로 끝났다. 올해 연도에 미 관세 수입은 1천9백50 억달러로 작년 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증가분을 반영하는 않은 것이다. 관세율 인상은 연준 절반이 넘는 4월부터 크게 뛰었다. 그러나 전체 연방 수입중에서 관세 점유는 3.7%에 불과하고 개인 소득세는 51%를 차지한다.
- 특히 이번 연방예산처(CBO)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처음으로 국방비나 메디케이 지출보다 많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 그리고 정부효율부(DOGE)을 책임졌던 일런 머스크가 2조 달러의 예산 절감을 주장했으나 실제 그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Federal deficit and surplus as a percentage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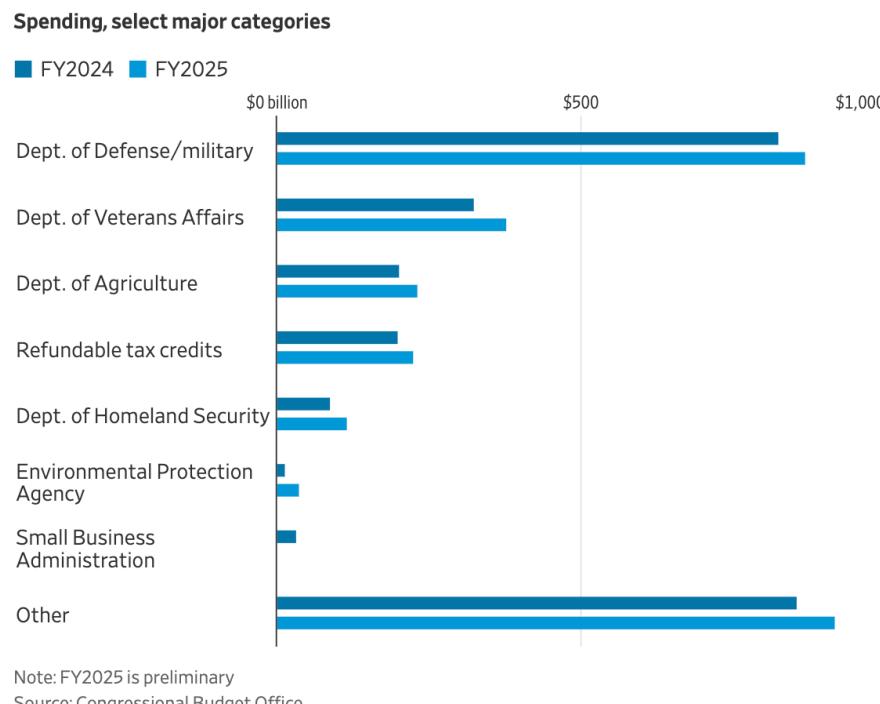


Net customs duties collected on U.S. imports

\$225 billion



Source: Treasury Department;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SJ 기사

WSJ: Fed Minutes Reveal Divide Over Outlook for Interest-Rate Cuts

연준, 금리 인하 전망 관련 의견 엇갈렸다

- 지난달 금리를 0.25% 인하한 지난달의 정례회의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 관리들은 올해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얼마나 인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부 갈렸다. 일부는 금리 인하 대신에 동결도 선호했다.
- 이 회의의 참석자 19명 중 과반수가 약간 넘은 참석자들은 올해 최소 2차례 더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며 (이달과 12월) 반면에 7명은 올해 추가 금리가 없을 것으로 봄에 따라 파월 의장 입장에서 컨센서스를 모으기가 힘들었던 점을 시사했다.
- 현재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관계자들은 관련 경제 지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WSJ 기사

Reuters: Fed's Williams backs more rate cuts this year due to labor market slowdown risks, he tells NYT

뉴욕 연준 총재 “노동 시장 둔화로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지지

- 뉴욕 연준 총재인 John Williams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시장의 향후 둔화 리스크를 감안해 올해 추가 금리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준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표결권이 있는 그는 노동시장이 둔화하지만 즉각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물론 그는 인플레이션의 경제 악영향 여파를 우려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둔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uters 기사

[무역 전쟁]**Reuters: US container imports drop in September as Trump tariffs disrupt global trade****9월 미 컨테이너 수입 감소...트럼프 관세의 글로벌 교역 여파로**

- 9월 컨테이너 미 수입 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8.4% 줄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상품은 22.9%가 감소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계속적인 교역 혼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급망 데이터 제공업체 Descartes는 밝혔다.
- 구체적으로 미항만들은 9월에 2백31만개의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했는데 작년 동월보다 물량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9월 기준으로는 3번째로 큰 물량 수준이다.
-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주요 미 항만들을 통해 수입되는 물량이 20피트 짜리로 2백만 개 아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연말 소비 물량이 미리 배송되었으며 관세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는 밝혔다.

Reuters 기사

Reuters: China expands rare earth restrictions, targets defence, semiconductor users**중국, 희토류 규제 확대...국방 및 반도체 기업들 타깃**

- 중국이 수십 개의 희토류 정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대상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는 방위 관련 기업들과 반도체 사용 기업들이 다.
- 이러한 발표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칩 제조 장비 수출에 대해 광범위한 금지 조치를 촉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중국은 전 세계 가공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하는데, 희토류 원소는 전기차, 항공기 엔진, 방산품 등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이다.
- 중국이 훌륭 등 5개의 희토류 원소 및 관련 물질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하여 12개의 품목이 수출이 제한되었다.
- 목록에 있는 희토류 원소 및 관련 물질 중 일부를 생산하는 해외 기업도 이제 최종 제품에 중국산 재료가 포함될 경우 중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아닐 시에도 적용된다. 중국산 재료가 포함되는 모든 경우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 또한, 이 허가는 방산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신청은 사례 별로 승인될 것이라 밝혔다.
- 이 규정은 14nm 이상의 칩, 256단 이상의 메모리칩, 그리고 칩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및 연구 개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칩은 스마트폰부터 AI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 베이징이 그간 더 많은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일부 허가 신청자는 여전히 허가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Reuters 기사

[미 행정부]

WSJ: Republicans Caution White House on Inflicting Shutdown Pain 공화당, 백악관에 공무원 해고 등 강경 입장에 경고

- 중진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을 향하여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공무원 대규모 해고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축소에 신중을 기해줄 것으로 조언했다.
- 현재 백악관은 민주당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종결토록 압박하기 위해 수천명의 공무원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 현재 셧다운의 원인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 보수파는 이의 연장 종결을 온건파는 수정해서 계속 유지하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Air Travel Disruptions Add Pressure on Congress for Shutdown Deal

항공 여행 중단... 셧다운 협상에 부담 가해

-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의 항공 여행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 항공 교통 관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항공편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제사들은 무급으로 일해야하는 상황이다.
- 11월 초까지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항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 교통안전청은 이에 관해 “승객들은 보안 검문을 통과하려면 더 오래 대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 미국 여행협회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여행 산업이 매주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 휴직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와 보안 요원의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항공 여행 시스템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 항공 여행객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rump's Wood Tariffs Are Coming. Who Will Be Hit Hardest 트럼프의 목재 관세,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나

-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10월 14일부터 침엽수 목재에는 10%의 관세가, 완제품 목재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1월에는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 가장 큰 타격은 캐나다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목재 공급국이다.
- 캐나다의 목재 수출에는 이미 35.19%의 별도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여기에 10% 관세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 EU는 7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는데, 여기에는 EU가 미국으로 완제품 목재를 수출할 때 15%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 일본 또한 15% 한도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상한선을 10%로 적용한 상태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목재 생산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완전한 국내 공급망 구축은 새로운 제재소 건설과 숙련된 인력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 또한 이민 단속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입 목재에서 국내 목재로 전환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Bloomberg: The US is Adding EV Chargers at a Record 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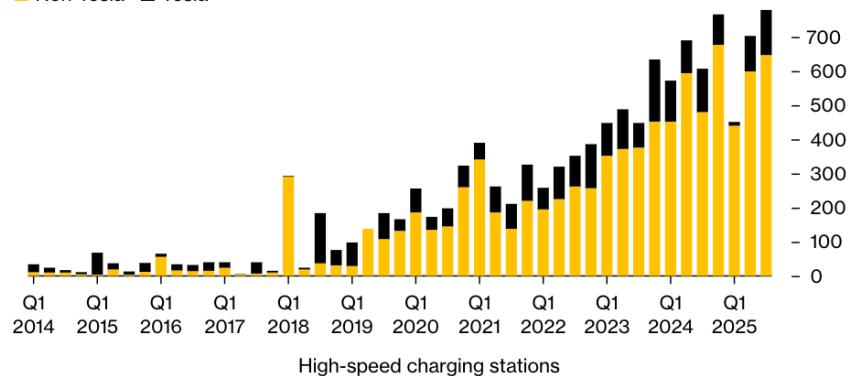
미국, 역대 최고 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추가

-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는 약 780개의 고속 충전소가 새로 지어졌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19% 확장되었다.
- 전기차 시장은 오랫동안 충전기 부족 문제로 시장이 불균형 상태였는데, 인프라 확장을 통해 불균형 상태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최대 규모 충전 네트워크사 EVgo Inc.에 따르면, 최근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한 전기차 구매자들이 집보다는 야외에서 충전하는 경향이 훨씬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소 건설이 증가하는 것은 세액 공제 조기 만료 이후 몇 년간 전기차 판매가 정체될 것이라는 추정과는 상반된다.

US High-Speed Charging Stations

A record number of EV fueling sites switched on in the recent quarter, as retailers rushed to cash in on a wave of new drivers.

■ Non-Tesla ■ Tesla



Source: US Department of Energy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Wendy's Unveils Turnaround to Revitalize Brand

웬디스, 기업 회생 프로젝트 발표...브랜드 회복 차원

- 버거 체인점 웬디스의 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다. 이들은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매출 목표치를 낮췄다.
- 웬디스는 브랜드를 다시 회복시키고 수익성을 가속화하고자 “Project Fresh”라는 새로운 기업 회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이들은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객 참여를 증진하고자 컨설팅 회사 Creed UnCo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 기반 광고를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웬디스는 인력 및 운영 시간을 최적화하여 자본을 재분배할 것이라 전했다. 각 지점 및 가맹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 덧붙였다.
- 더욱 자세한 이니셔티브는 11월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WSJ: 기사

Bloomberg: Netflix Expected a ‘KPop’ Rally. Elon Musk and Tariffs Got In the Way

넷플릭스, K-pop 열풍 예상했으나 일론 머스크와 관세가 걸림돌

- 넷플릭스는 견조한 실적과 성장 계획에 힘입어 상반기 내내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투자자들이 두 가지 위험 요인으로 인해 회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 첫 번째 요인으로는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 또한, 일론 머스크가 넷플릭스의 한 제작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라고 말한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된다.
- 그러나, Prime Capital Financial의 투자 고문 John Cervantes는 이에 관해 “넷플릭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핵심 구독 상품”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큰 역풍을 불러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넷플릭스의 콘텐츠에 대해 구독자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넷플릭스의 히트작 “기묘한 이야기”的 마지막 에피소드 공개를 기대하고 있다.

Netflix's Volatile Year

Shares have struggled in the second half of 2025

✓ Netflix stock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